



©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 이야기
동관이의 마음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 이야기 동관이의 마음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 이야기
동관이의 마음



세이브더칠드런

나는 동관이의 '마음'입니다.

나는 동그라미였다가, 하얀색이었던다가, 뽕죽해지기도 하고
 풍선처럼 부풀기도하고 비 온 날처럼 축축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방방이를 탄 것처럼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동관이가 방방이를 타 본 적이 없어서

진짜 이런 기분 일지는 모르지만요.

아마 동관이의 아홉 번째 생일이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제 그만 방방이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아요.
동관이가 할머니께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졸랐는데 안된다고 하셨대요.
친구들 집도 멀고, 할머니 밤 일도 많아서
시간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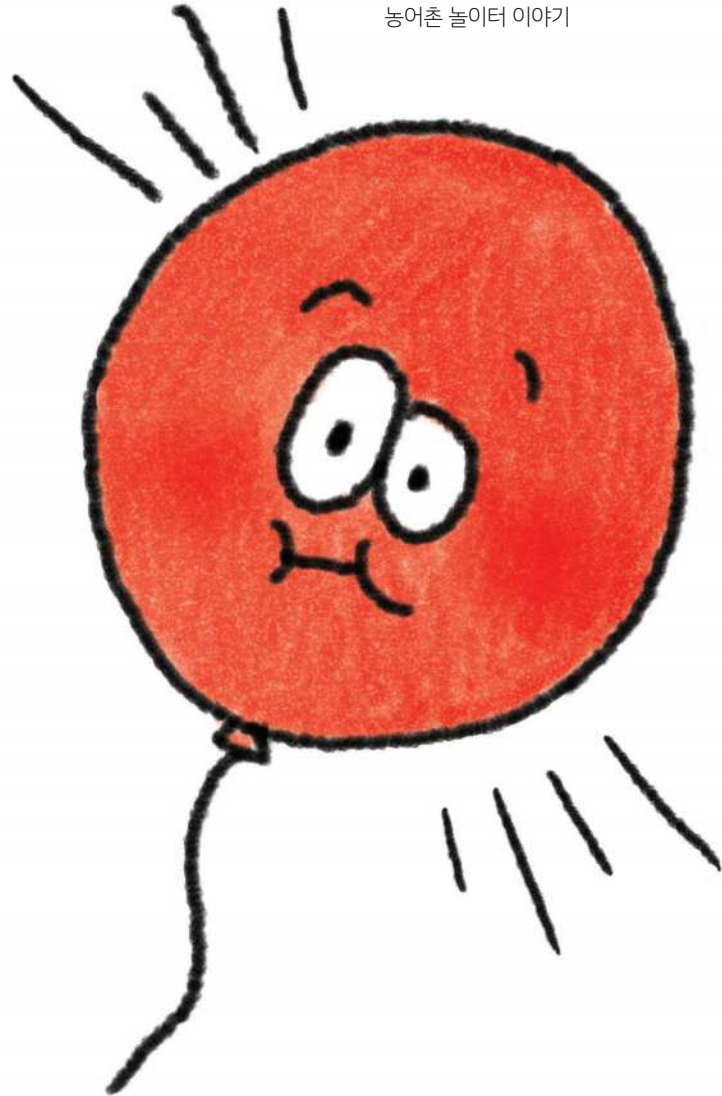
동관이한테는 비밀인데요.
방금 할머니 '마음'이랑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따가 밤에는 케이크에 초도 켜고,
동관이 생일 선물도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 '마음'은 호색이래요.
동관이 생일에 친구들과 맘껏, 실컷
놀이 못하게 한 미안함 때문이래요.



오! 역시 학교에 오니까 나는 분홍색 풍선이 되었어요.
동관이 짹짹 소리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 '마음'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봐도 응답이 없어요.
아직 자고 있나? 깨워볼까?



콩닥 콩닥! 둠칫 둠칫!
내가 갑자기 드럼을 쳐요!



동관이가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고 말하려나 봐요!
아...동관아 어서 말해... 비트가 빨라지면
분홍색 풍선이 터질지도 몰라!

푹슈슈... 소라는 집에 가야 한대요.

스쿨버스를 타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그렇대요.

나는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이 되었어요.

오! 동관이 동네에는 친구들이 함께 망췌, 실컷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걸까요?



이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지겹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동관이가 3시간 넘게 게임만 해서

내가 얼마나 뽀족해 졌는지 몰라요.

괜히 할머니 '마음'한테 뛰어가서 콕 찌르고 그랬는데...



한껏 뻥뻥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어? 그런데 책상 위에 큰 선물이 있네요.
오! 지난번에 동관이가 갖고 싶다 했던 블록놀이 세트다!
동관이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번개 맞은 것처럼 짜릿! 했는지 몰라요!
우와~ 딸기 케이크도 있네?



나는 뻥뻥해지려던 생각은 온데 간데 없이
밝은 빛을 내는 달덩이가 됐어요. 동관아 잠깐잠깐.
촛불 끄지 말고 잠깐만! 나 아직 소원 빌 준비 안됐단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어, 동관이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놀이터!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소라랑 저녁까지 놀 수 있고,

같이 비도 피할 수 있고,

같이 차 타고 집에도 갈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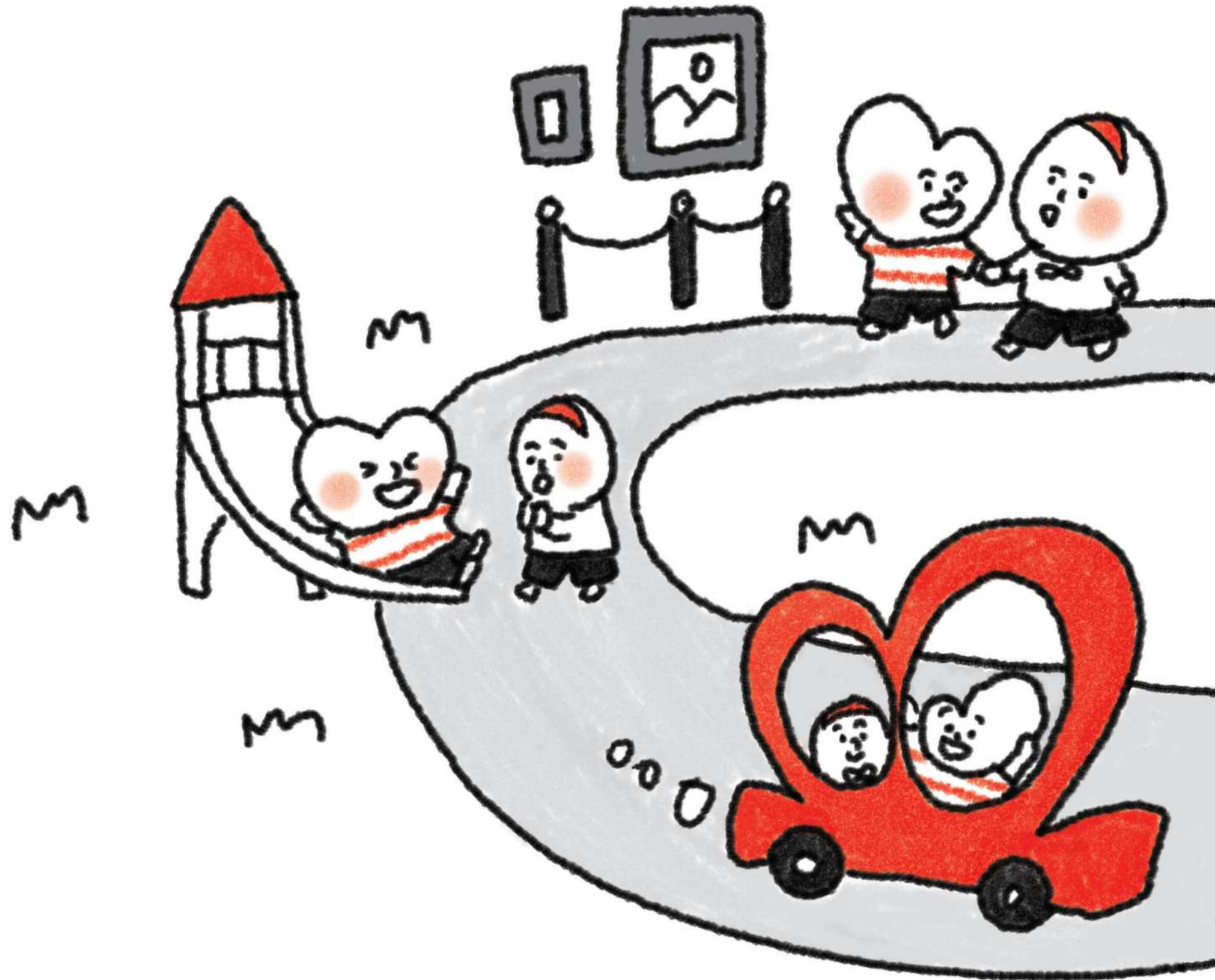
같이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왕이면 시내에 있는 미술관도 가보고 싶어!

흠흠, 앗험,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소라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놀면 좋잖아.

그렇지? 동관아?



오늘 나는 파란 하늘 같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게 아마 어제 솔직하게 소원을
다 빌어서 그런가 봐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인데, 설마 소라 '마음'이 내 텔레파시에
응답해 주는 건 아니겠지? 어쩜 좋아!



내가 원하는
놀이터는?

어? 동관이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놀이터 만들기 활동을 하러 누가 온대요.
세이브더칠드런인 거 같기도 하고. 예뻐 모르겠다.
어쨌든 좋은 아저씨 아줌마들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나요!



놀이터 만들기 활동이라고 해서 미술 시간인 줄 알았는데,
세이브더칠드런 선생님들이랑 건축가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밖에서 뛰어놀고, 놀고 싶은 놀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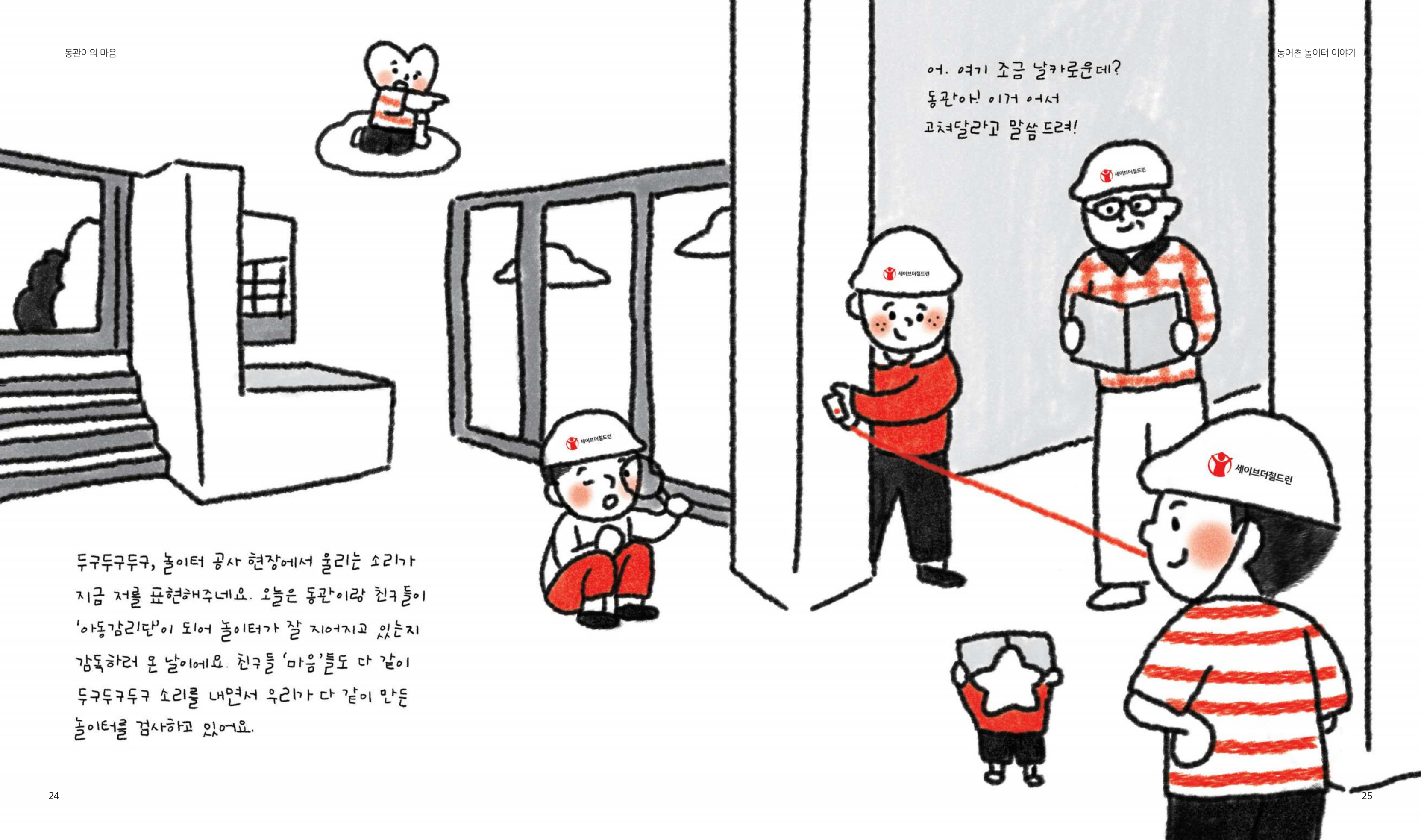
우와~ 친구들 '마음'들도 다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네요.
태호 '마음'도 나랑 같은 줄은 몰랐어.
학교 끝나고 방방이도 타고 실내에서 게임도 같이 하고,
우리만의 새 놀이 방법도 만들어보고 싶었구나!
오늘부터 나랑 같이 놀아 보자고 텔레파시를 보내봐야겠어요.



슈! 이건 비밀인데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나랑 내 친구 '마음'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생긴대요!

그것도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동판이랑 친구들이 상상하며
이야기했던 놀이터가 생긴대요.
실내 아지트 같아요!
아지트가 생긴다니,
이거 정말 꿈은 아니겠죠?





두구두구두구, 놀이터 공사 현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지금 저를 표현해주네요. 오늘은 동관이란 친구들이
 '아동감리단'이 되어 놀이터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러 온 날이에요. 친구들 '마음'들도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만든
 놀이터를 검사하고 있어요.

어. 여기 조금 날카로운데?
 동관아! 이거 어서
 고쳐달라고 말씀 드려!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놀이터에서 놀 수 있대요!
 동관아. 그래서 밤이 빨리 지나가라고
 벌써 침대에 누운 거야?
 아직 9시도 안됐다고! 네가 눈을 감으면
 나...다...다...같이.....자...잠.....
 이.....,오.....드르렁

여기가 동관이 꿈 속인 건 나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소라 '마음'이 여기에 와 있는 거지?
 할머니 '마음'도 있네? 어? 저건 우리 동네
 면장님 '마음'이잖아? 오잉? 교장 선생님이랑
 마을회관에 만날 나가시던 할아버지 '마음'도
 여기 계시네? 다들 무슨 일 있어요?



놀이터! 동관이랑 친구들이 이름 붙였던
신기방기놀이터가 다 만들어졌다!!
빨리 일어나서 놀이터로 나오라고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동관이 꿈 속에 들어왔나봐요.
동관아 눈 떠!!

신기방기놀이터완공식

어느덧 이 시골 마을에서 동관이의 '마음'으로
961,692시간째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동관이의 열한 번째 생일인데요.

며칠 전에 할머니 '마음'이 말해주 비밀 얘기가 있어요.

신기방기 놀이터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대요!

혹시 제가 동관이 아홉 번째 생일에 빌었던 소원 기억하세요?

놀이터가 생기고, 이제는 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이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동관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던
영화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다음 달에는 소라가 가보고 싶었던

놀이 공원도 가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이터가 생기고 나서 이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친구들 '마음'이 학교 끝나고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가지 않고 놀이터에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은 가끔 간식도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어른들 '마음'들이 놀이터에 와서
우리 '마음'처럼 노는 걸 봤는데
그걸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동네 모든 '마음'들이 이제껏 본 적 없는
크고, 부드럽고, 밝고, 힘찬 모습으로 신기방기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모든 마을에 신기방기와 같은 놀이터가
생기면 농어촌 지역 '마음'들이 폭신한 뭉게구름이 돼서
둥둥 떠다닐 것 같아요. 동관이에게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라고
해야겠어요.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시겠죠?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이야기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놀이와 보호

흔히 자연을 벗 삼아 푸른 숲을 마음껏 뛰어다닐 것 같은 농어촌 지역 아이들은 화려한 놀이 기구는커녕 마을 회관에서조차 '안전히 놀라'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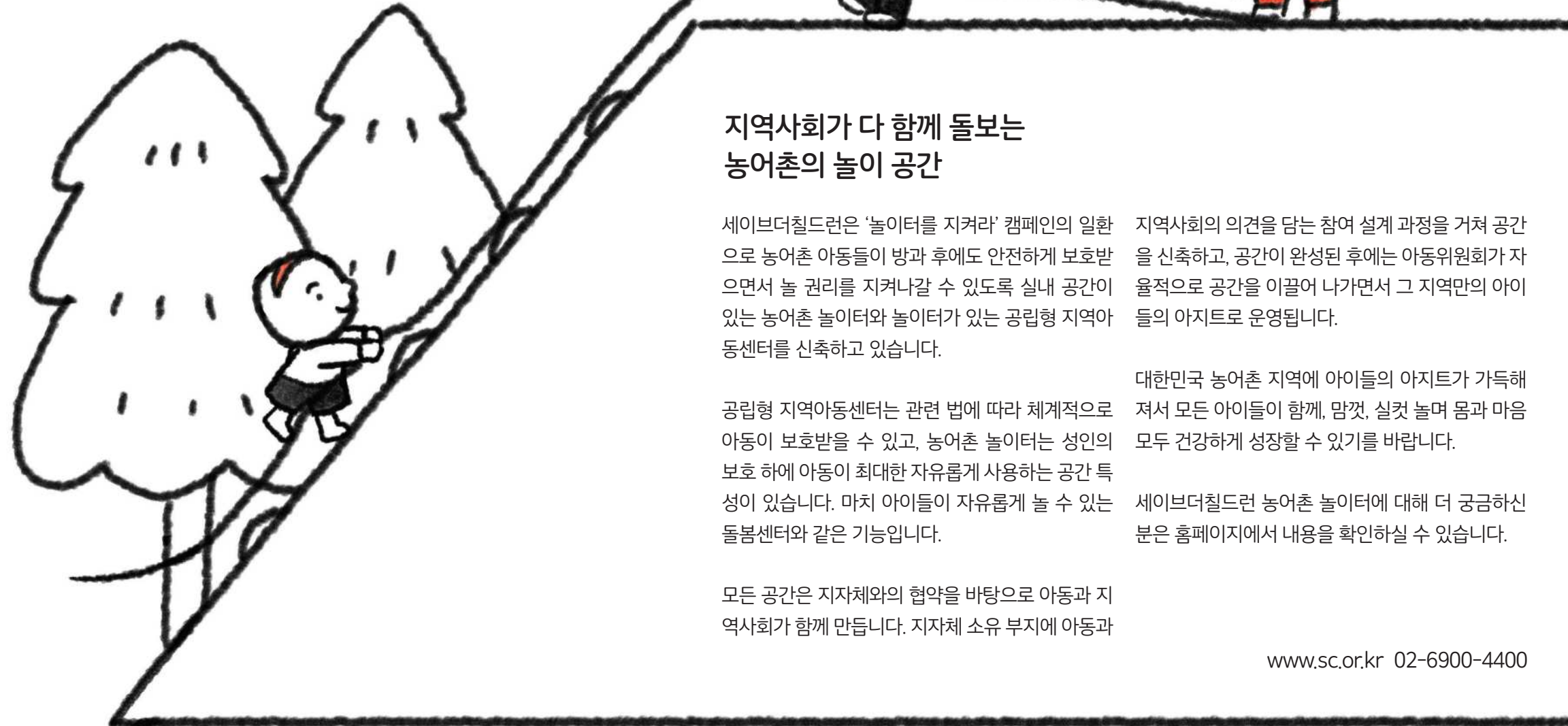
거주지가 산포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 상 집이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에 맞춰 통학버스를 타야만 해서 결국 집에 가서 혼자 노는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농어촌지역 아이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권리상황분석 Child Rights Situation Analysis'을 진행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발견한 농어촌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방과 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었고, 이 책임 문제는 아이들의 심리 정서 지원, 신체 활동 및 행복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활 모습과 도시 지역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면서 격차가 매우 크다고 인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놀고 싶은데 놀 곳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놀이 문제는 도시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가 다 함께 돌보는 농어촌의 놀이 공간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농어촌 아동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이 있는 농어촌 놀이터와 놀이터가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관련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농어촌 놀이터는 성인의 보호 하에 아동이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돌봄센터와 같은 기능입니다.

모든 공간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듭니다. 지자체 소유 부지에 아동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은 참여 설계 과정을 거쳐 공간을 신축하고, 공간이 완성된 후에는 아동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지역만의 아이들의 아지트로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에 아이들의 아지트가 가득해져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맘껏, 실컷 놀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에 대해 더 궁금하신분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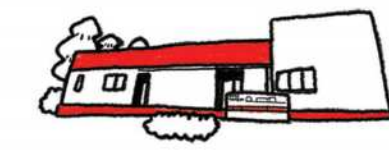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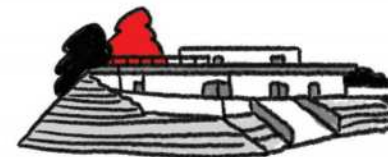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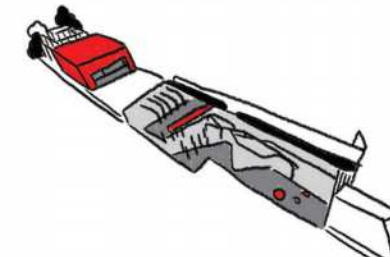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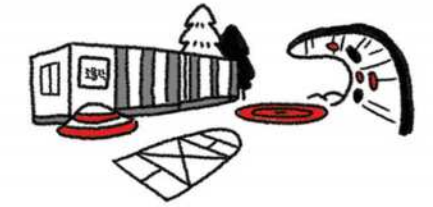
www.sc.or.kr 02-6900-4400

지역사회가 다함께 돌보는 농어촌의 놀이 공간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2015년부터 농어촌 아동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놀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이 있는 농어촌 놀이터와
놀이터가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 이야기

- 농어촌 놀이터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모든 공간은 지자체 소유 부지에
아동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만들어진 만큼
놀이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 22개 지역에 2019년까지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농어촌 놀이터 9개소를
신축했고, 20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2곳과
놀이터 4곳이 완성되어가는 중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 놀이터 이야기 동관이의 마음

발행일: 2020.7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글: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
일러스트·디자인: 그래픽오션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세이브더칠드런
전화: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

© 세이브더칠드런

